

엮힌 다리에 걸쳐 있는 衣文은 매우 아름답고 自然스럽다. 比較的 큰 琵琶를 오른손으로 안고 왼팔꿈을 무릎 위에 얹고 자루를 잡았던 듯하다. 목에는 한 줄 목걸이를 걸었고 머리카락이 옆으로 늘어졌고 天衣는前後左右로 날리고 있다.

비록 적은 像이지만 各部分의 彫刻은 매우 섬세하고 아름다우며 全體의 均衡도 整頓되었다. 蓮花의 表現이나 天衣의 流暢한 線等은 八世紀 中葉 新羅彫刻美術이 가장 圓熟했을 때의 다른 作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恰似하다.

奏樂像은 石製、金屬製를 莫論하고 他例를 볼 수 있으나 이와같이 洗練된 手法를 보여 주는 예는 드물다. 이 石材는 左右로 더 連結되었으니 라는 點은 一見하여 짐작되는 데 이 左右에 어떠한 像이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매우 哀惜한 일이다.

扶餘 長蝦里石塔의 舍利藏置

金 永 培

一、舍利具의 發見經緯

一九六二年 八月 忠南 扶餘郡 場岩面 長蝦里에 있는 三層石塔이 解體 復原修理를 하게 되어 筆者가 監督의 任務를 띄고 八月 二十三日 現場에 到着하여 石塔을 解體하게 되었는데 이 方形三層石塔의 保存狀態는 매우 危險한 程度로 基壇石이 많이 攪亂되고 基壇面石이 一枚 缺失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塔基壇部에서는 過去에 鍍金 木製小塔과 象牙小佛이 發見되어 現在 扶餘博物館에 陳列되어 있는 故로 過去에 解體되었던 塔이 아닌가도 생각되었으나 二層屋身에 이르러 屋身 上面에 塵埃物이 全面에 덮혀 있고 屋身中央에는 圓形舍利孔이 나타났다. (孔徑 七cm 深 十二cm) 孔口는 香木片을 圓形으로 작아서 瓶마개하듯이 끼었는데 木片이 腐蝕되어 若干만이 남아 있었고 孔內는 紫丹香 粉末로써 充滿되어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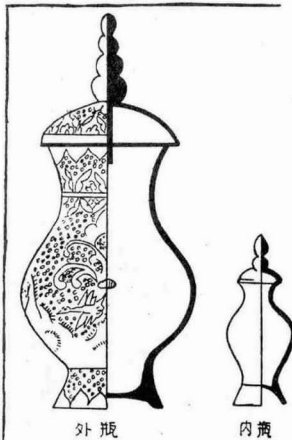
으며 얼마 내려가지 않아서 舍利具를 發見할 수 있었다. 卽 舍利具를 布片에 싸서 孔內에 安置하고 空間에는 舍利器가 搖動되지 않도록 香末로 補填되어 있었던 것이다.

二、舍利具

前記한 바와 같이 舍利器는 紋儀가 들어 있는 絹織物로서 外部를 한번 싸고 內部를 楮紙로서 다시 싸았는데 楮紙는 거의 消滅되었으나 絹織物만은 若干 腐蝕되었을 뿐으로 絹質을 알아낼 수 있는 程度이고 舍利具는 外瓶과 內瓶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詳記하면 다음과 같다.

A、外瓶과 舍利

外瓶은 金銅製臺付有蓋瓶인데 鍍金은 거의 剝落되어서 若干의 痕跡이 남아 있을 뿐이고 瓶全體에는 緻密한 紋樣이 陰刻되어 있는데 靑鏤이 全體를 덮고 있어서 肉眼으로는 識別키 困難하다. 瓶 胴體에는 兩耳가 付鑄되어 있고 兩耳에는 共히 靑銅鐵系로서 長卵形으로 된 連鎖環이 달려 있는데 한 쪽은 十一環이고 한 쪽은 十二環이 連結되어 있다. 瓶 外部에는 緻密한 線彫로서 山水、飛鳥를 彫鏤하고 瓶의 頸部에는 亦是 線彫로서 寶花로 六區의 花房을 만들고 그 속에 六瓣의 蓮華紋이 各各 配置되었는데 其外 胴體의 空間全面에는 寶相花紋과 圓紋으로 메꾸었고 瓶의 口緣과 臺의 底部에는 各其 八葉蓮瓣으로 둘러져 있다. 蓋의 外部에는 陵線으로 區分된 八角을 이루고 있어서 마치 八角浮屠의 屋蓋形을 聯想케 하고 있는데 區間에는 每區마다 蓋冠에서부터 寶花로서 切半의 花房을 만들고 그 속에 蓮華三瓣만이 彫鏤되어 있다. 蓋中央에는 八葉蓮瓣



으로 鈕座를 만들고 그 中央에 圓形四段의 塔形鈕가 달려 있는데 舍利塔의 相輪部를 模倣한 듯하며 蓋裏面에는 朱漆을 하여 色彩가 鮮明하게 남아 있다. 瓶은 鑄造時에 鎔液이 잘 들지 않은 탓인지 數個所에 구멍이 뚫

려 있다. 舍利의 奉安方法은 內瓶을 外瓶 속에 넣고 瓶口를 楮紙로써 密閉하였는데 密閉한 楮紙속에 綠豆보다 훨씬 작은 白色眞珠 三十六顆가 絹糸를 노끈 모양으로 꼬아서 꿰어져 있었다.

全高 九·六 cm 瓶高 六·九 cm 蓋高 三·二 cm 鈕高 二·二 cm 胴徑 四·二 cm 口徑 二·九 cm 蓋徑 三·四 cm 連鎖環의 長 十一環 結 六·五 cm 連鎖環의 長 十二環 結 七 cm

B、內瓶과 舍利

內瓶은 銀製 臺付有蓋瓶으로도 銀質이 酸化하여 瓶全體를 紫鏽이 덮고 있으며 彫刻이 없는 素文瓶인데 蓋에는 二段의 塔形鈕가 달려 있고 內部에는 外瓶에서와 같이 楮紙로 極小粒의 眞珠 七粒(白色 六 黑色 一)을 싸서 充滿시켰다.

瓶의 纖細한 手法과 流麗한 線은 마치 高麗靑磁에서 볼 수 있는 神秘感을 느끼게 한다.

全高 四 cm 瓶高 三 cm 蓋高 一 cm 鈕高 〇·八 cm 胴徑 一·八 cm

口徑 一 cm 蓋徑 一·三 cm

三、結言

以上으로 扶餘 長蝦里 石塔의 舍利具에 對하여 簡單히 記述하였는데 舍利藏置로서는 比較的 簡略한 形式이나 前記한 바와 같이 同塔의 基壇部에서 發見된 小形의 塔像이 高麗代 遺物로서 考證되어 왔고 今般檢出된 舍利具의 性格이 高麗代의 遺物임이 거의 確證됨에 長蝦里 異形石塔의 建立年代를 考證하는데 더욱 重要한 資料가 될 것이며 同塔內 發見遺物이 二次에 걸쳐 完全히 收拾保存하게 된 것은 多幸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南原 周生面의 石佛 二軀

鄭 永 鎬

昨年 十二月 下旬 南原郡 周生面에서 石佛 二軀를 調査한 바 있어 簡

單히 紹介한다.

一、樂洞里立像(사진參照)

樂洞里部 落吳미처 林野에 位置하며 그 周圍에는 麗代의 瓦片과 磁器破片이 散在하였다. 石佛의 膝部 以下가 埋沒되었는데 近年에 洞民



들에 依하여 그 全體가 들어났으며 磨滅된 部分은 아직 純白으로 彫刻도 完全한데 그 以上の 露出되었던 處은 磨滅이 甚한 部分도 있어 彫刻의 痕跡만 보이는 處도 있다. 花崗石材인 이 佛像은 光背와 臺座를 具存한 南向正面直立의 如來像인 바 特別히 方形下臺上의 八角臺座가 注目되었 다. 一邊長 一一·五 cm 高 一·六 cm의 方形下臺前、左、右、上面에는 伏蓮이 있고 高 七·五 cm 四分圓의 물딩을 刻出하였으며 그 위에 高 四 cm의 角形받침 一段이 있는데 그 上面에는 八角의 角形받침 一段이 마련되어 上臺를 받고 있다. 一邊長 三·三 cm 八角上臺에는 八瓣의 仰蓮이 새겨졌고 上面에 佛像의 兩足이 彫刻되었는데 그 左右에는 徑 一·四 cm의 形花紋이 線刻되었다. 佛像과 光背는 一石이며 舟形擧身光으로서 그 頂上에는 形花紋을 陽刻하고 二重線으로 頭身光을 表現하였는데 그 內周에는 花紋을 돌렸으며 外緣에는 火焰紋이 流麗하게 彫刻되었다. 光背로부터 陽刻된(厚 一·四 cm)立像은 高 一·三 cm 로서 素髮의 頭頂에는 큼직한 肉髻가 있고 兩耳가 짧으며 三道가 있다. 相好는 磨損이 甚하여 眼·鼻部가 어렴풋할 뿐 分明치 않다. 溫柔한 양복에는 微笑가 어린다. 通肩한 法衣는 胸前으로부터 平行圓弧를 그리면서 내려졌고 兩腕에 걸친 衣端은 兩脚左右에 굽게 펼쳐졌다. 兩手が 破損되어 手印은 確然치 않으나 右手를 胸前에 들은 듯하며 左手는 臍前에 들었는데 持物이 있는 듯하다. 臺座의 蓮瓣이나 衣紋、火焰等 手法으로 보아 年代는 羅末麗初의